

## 경기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93.4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됨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9% 증가, 대형마트 0.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3% 증가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11.5% 하락

## 고용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서울의 9월 청년층 취업자 2.9%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 **서울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59.3%로 전국대비 0.2%p 차**
- **서울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4.4%로 전국대비 1.4%p 차**

## 부동산

- **9월 주택매매가격은 3개월 연속 보합세**
  - 강북지역(-0.1%)은 노원구(-0.3%), 용산구(-0.3%)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하락
  - 강남지역(0.0%)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서구(-0.2%), 영등포구(-0.1%)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9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수요증가로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1.7%)은 노원구(2.9%), 마포구(2.2%)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강남지역(1.6%)은 강동구(2.5%), 송파구(2.0%)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금융

- **8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3개월 연속 증가세**
  -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42조 5,556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7,283억원 (0.50%) 증가
- **서울의 9월 신설부도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신설법인 수는 1,597개로 전년동월대비 7.5%(112개), 부도업체 수는 35개로 전년동월 대비 28.6%(14개) 감소
- **서울 9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0.6억 달러, 수입은 105.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2%, 18.1% 증가
  - 수출 1순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 생 · 산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감소폭 축소

###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는 93.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5.8% 감소,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전년동월대비 식료품(21.2%), 인쇄 및 기록매체(11.8%) 증가, 기타제품(-23.7%), 금속 가공(-12.3%), 종이제품(-10.6%)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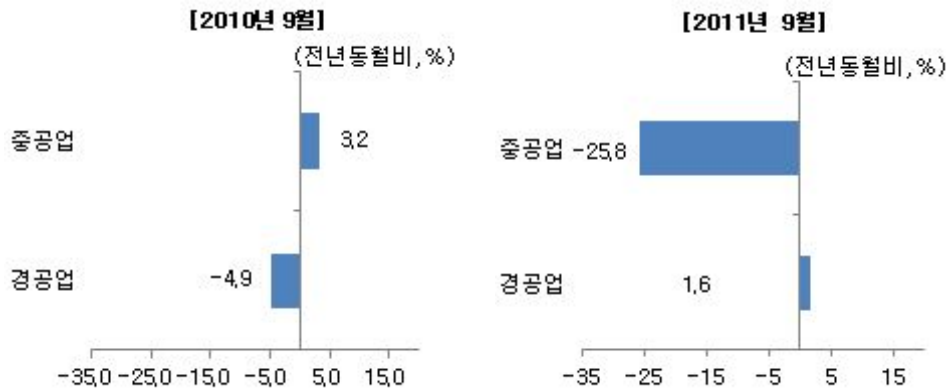
### ■ 전국의 9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9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전월대비로는 1.1%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2.6%), 인쇄 및 기록매체(-18.0%), 전기장비(-1.9%)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5.5%), 자동차(15.2%), 1차 금속(8.3%) 등이 증가하여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3.5%)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8.0%), 도매소매(2.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5.7%), 운수(4.0%), 보건사회복지(5.7%) 등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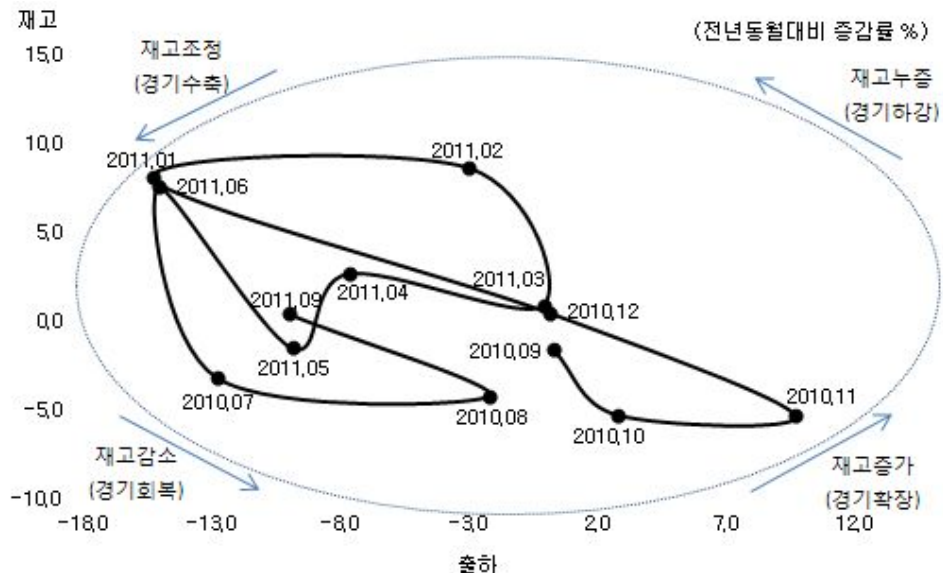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 서울의 9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9월 재고지수는 156.4(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1차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 전업종에서 전년동월대비 재고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경기수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 소 · 비 |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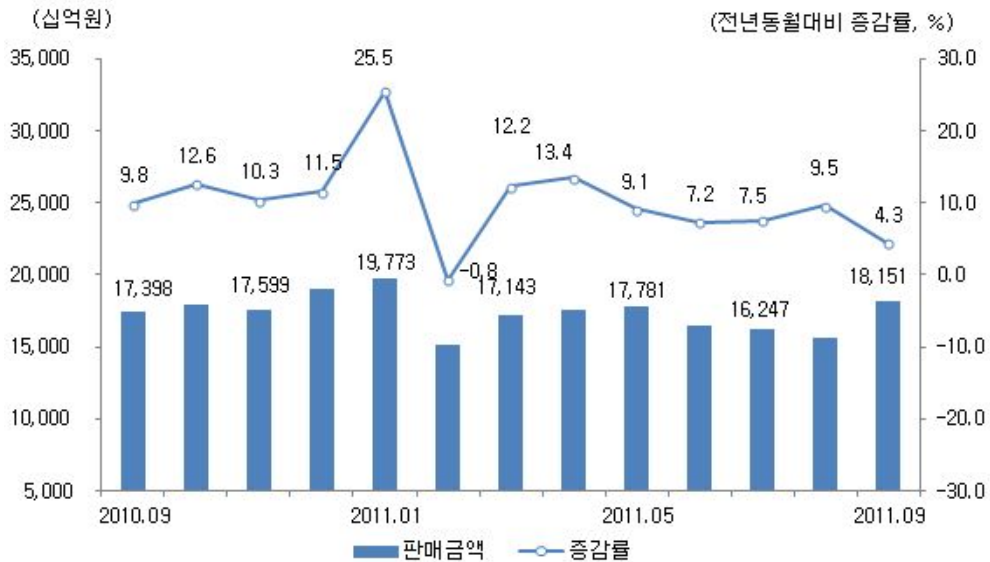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8,151억원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9%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의 9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비중은 식품이 1위

-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1.7%)이며, 대형마트는 식품(60.5%)인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1%인 6천544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2권역(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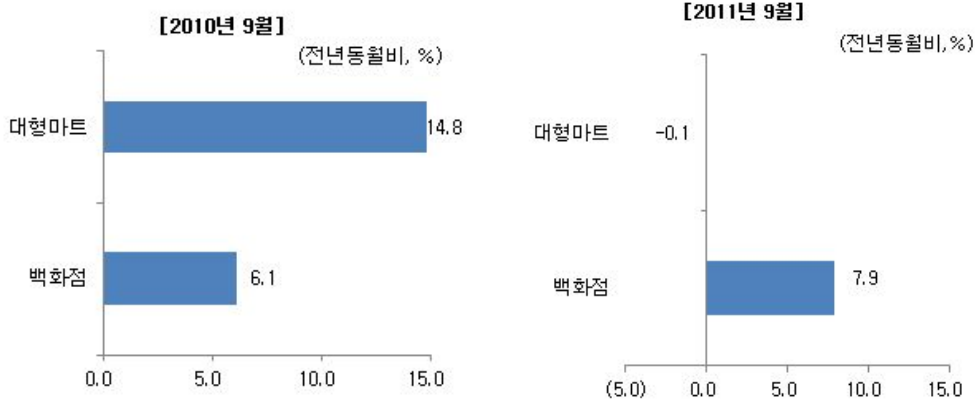
## ■ 전국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6,12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8.6% 증가, 대형마트는 4.0%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4.7%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7.3%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9.1%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1.5(2005년=100.0)으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5.0%, 공공서비스 0.5%, 개인서비스 2.7% 각각 상승

## ■ 서울의 9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6%, 전년동월대비 11.5%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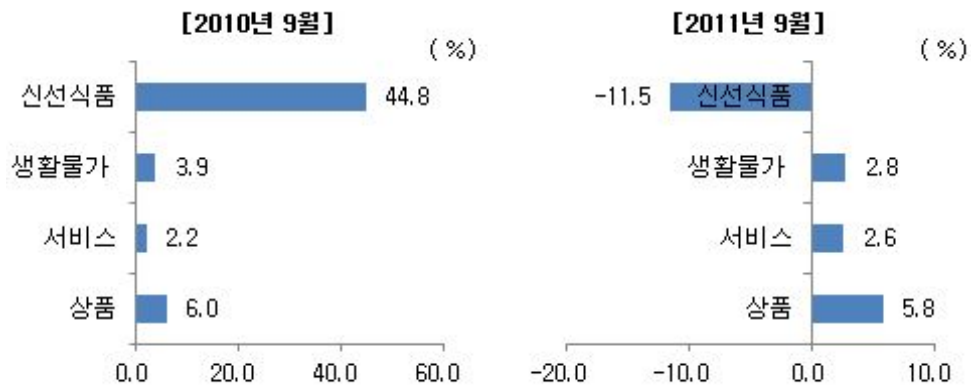
## ■ 전국 9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6(2005년=100)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4.3%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하였으나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동월대비 7.4% 각각 하락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광주, 서울, 경기 등 12개 시도는 0.1~0.3%씩 상승하였고 인천, 전남, 경북은 변동이 없으며, 강원은 0.1%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서울의 9월 전월대비 돼지고기, 고등어, 멸치 등 가격 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8.8% 하락, 양곡과 수산물은 전월대비 평균 2.8% 하락
- 청과류 중 마늘 2.2%, 배추 29.2% 각각 하락하였으며, 양파 2.4%, 파는 30.0% 등은 각각 증가
- 수산물의 경우 전월대비 멸치는 0.3%, 고등어는 2.9% 각각 상승, 양곡류인 쌀은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전월대비, 원, %)

품목	 돼지고기	 고등어	 멸치
가격	5,009원	3600원	2,539원
전월비	10.6%	2.9%	0.3%
품목	 쌀	 마늘	 배추
가격	43,398원	6,576원	3,171원
전월비	-0.5%	-2.2%	-29.2%

주 :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마늘(간마늘(상품)), 돼지고기(박피 암)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서울시 신선식품 중 상위 6개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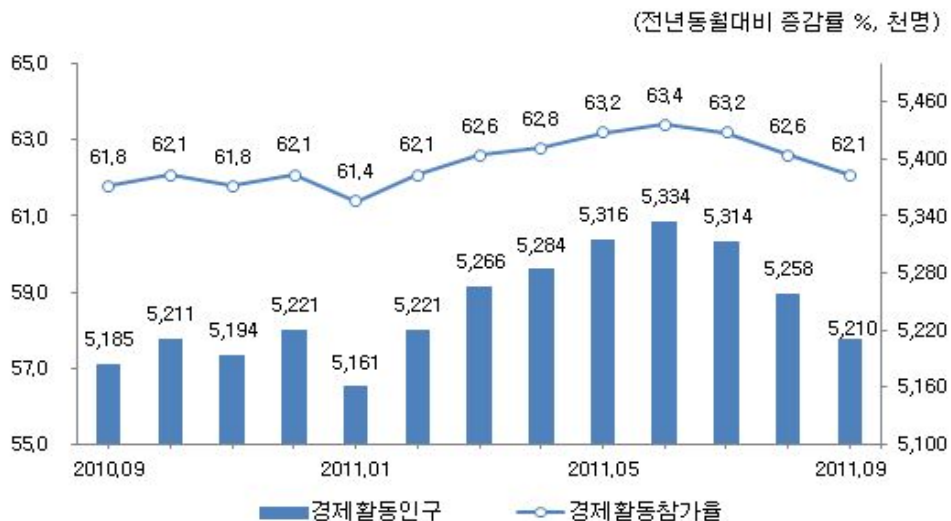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9월 15세 이상 인구는 8,3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1%)이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5,2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0.5%)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1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0.9%)이 감소

## ■ 전국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9월 15세 이상 인구는 4,11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9천명(1.1%)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507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5천명(0.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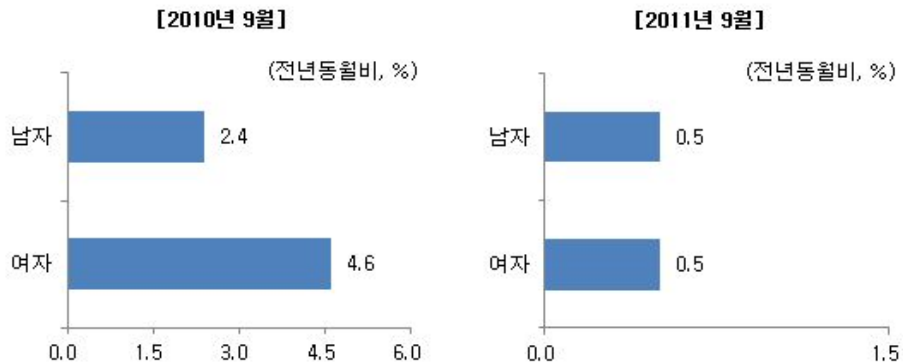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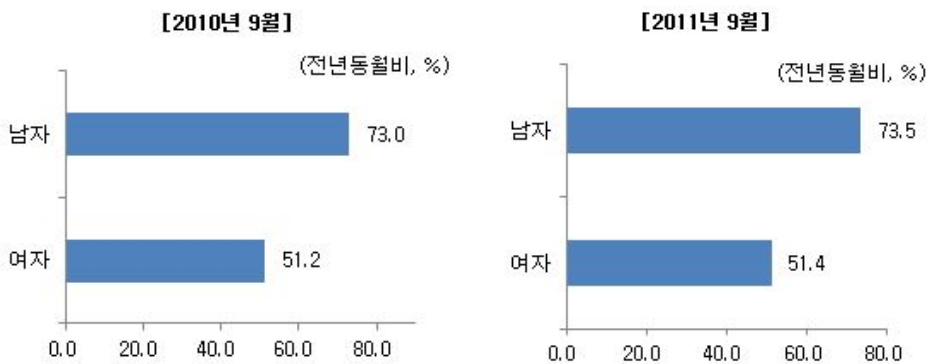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86천명, 여자는 2,2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모두 0.5%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5%, 여자는 51.4%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5%p, 여자는 0.2%p로 각각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 취 · 업 · 자 |

## 서울의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9월 취업자는 4,9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0.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8천명, 여자는 2,1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2천명(0.4%), 여자는 7천명(0.3%)이 각각 증가
- 서울과(0.4%) 전국(1.1%)의 취업자 수는 0.7%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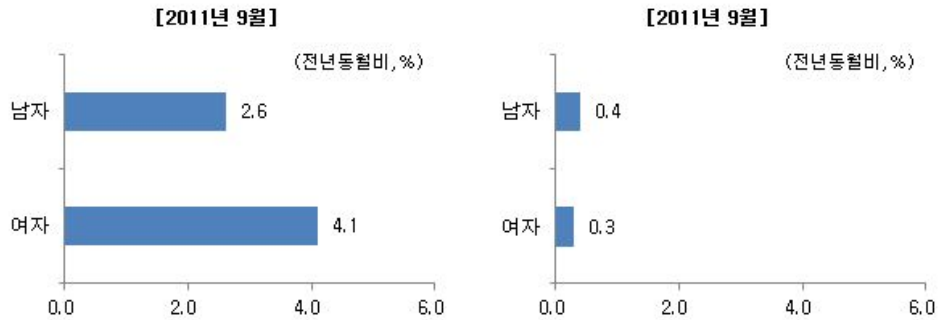
## ■ 전국의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9월 취업자는 2,431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4천명(1.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1천명(1.3%) 증가하였고, 여자는 1,013만8천명으로 8만3천명(0.8%)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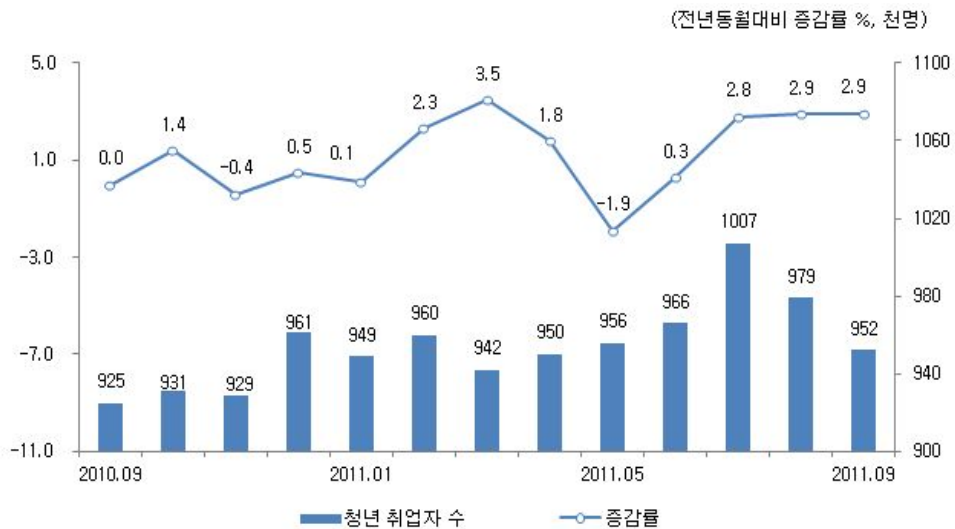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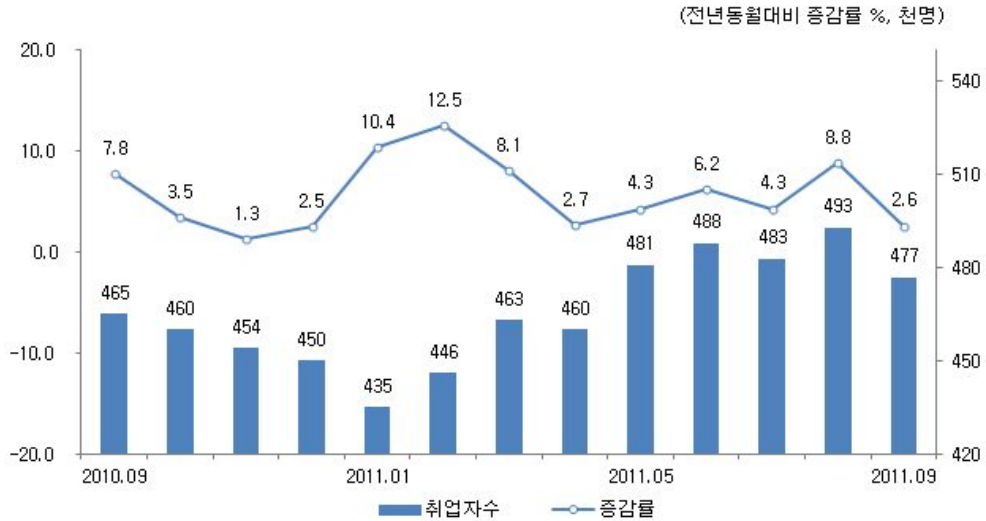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청년층(15세~29세),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9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서울의 9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 산업별로 건설업,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은 각각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3천명(8.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7천명(1.9%) 각각 증가
- 건설업 38천명(-9.5%), 농림어업 0.4천명(-4.9%), 도소매·음식숙박업 30천명(-2.3%), 제조업 12천명(-2.2%)은 각각 감소

####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는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37천명(16.0%), 관리자·전문가 27천명(1.9%) 각각 증가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16.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80천명(-5.5%), 서비스·판매종사자 63천명(-5.1%)은 각각

####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비임금근로자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1천명(-2.1%), 무급가족종사자는 15천명(-8.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94천명(9.2%)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88천명(-7.1%), 일용근로자는 51천명(-12.0%)이 각각 감소

##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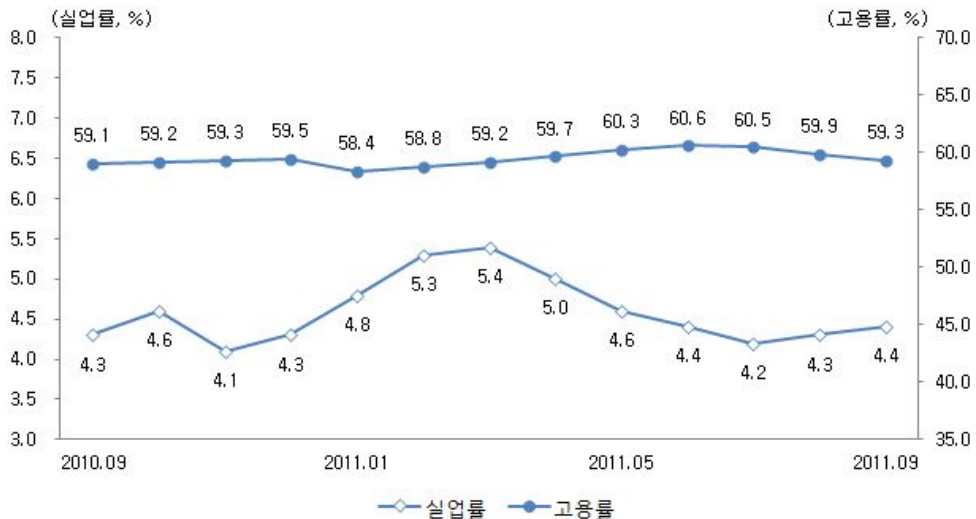
서울의 9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실업률 모두 상승

## ■ 서울의 9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9%,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5%p, 0.1%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59.1%) 고용률과 0.2%p 차이

## ■ 서울의 9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실업자는 2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2.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8천명, 여자는 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천명(2.0%), 여자는 3천명(4.1%)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전국대비(3.0%) 1.4%p 차이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3.8%로 0.2%p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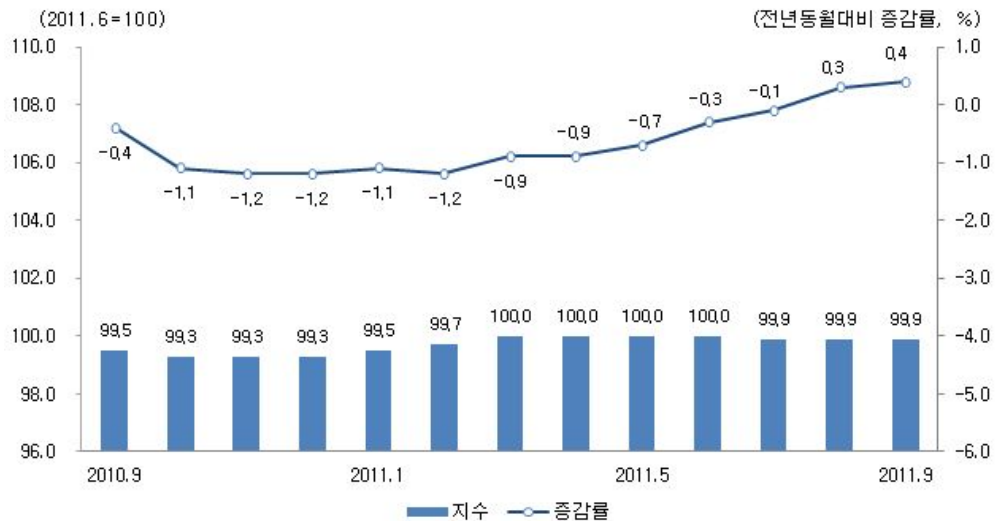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 포함세 지속 가운데 아파트는 하락세

■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로 보합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1% 하락한 가운데,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2% 상승,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보합

■ 전국의 9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에 이어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전월대비 0.8%, 1.1%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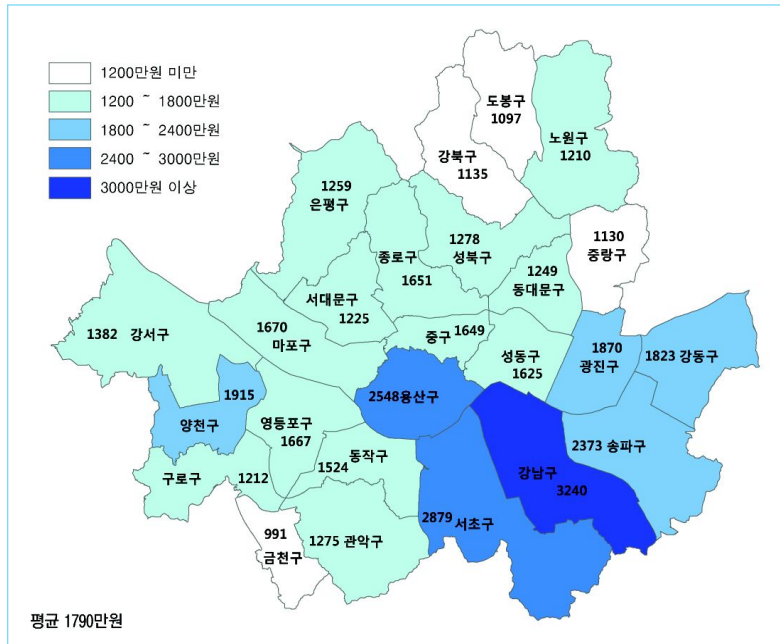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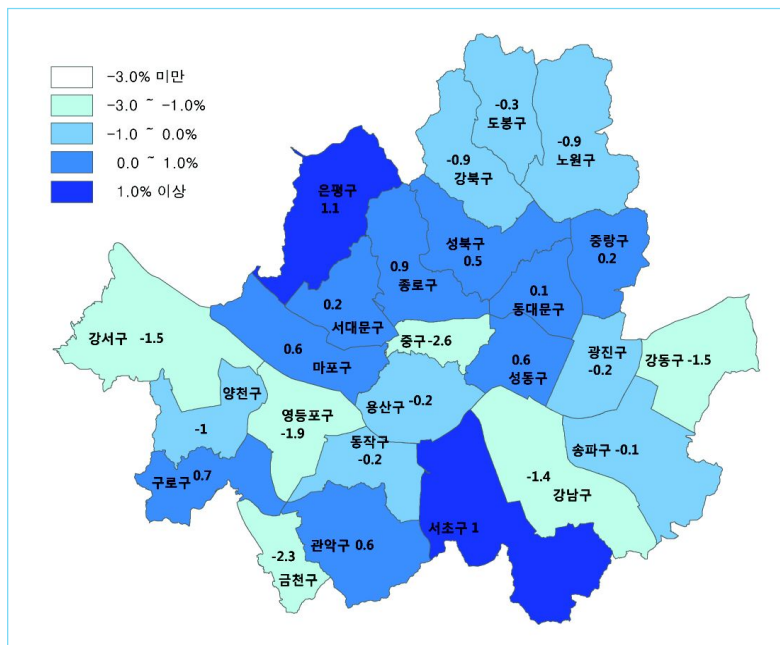


- **강북지역은 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가운데, 노원구와 용산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광진구는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소형의 저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노원구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중대형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전월대비 0.3% 하락
  - 용산구는 용산역 재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거래가 부진한 모습으로 미분양과 급매물 등이 가격하락을 주도하여 전월대비 0.3% 하락
- **강남지역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서구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포함**
  - 강서구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가양동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 영등포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국제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거래 부진으로 전월대비 0.1% 소폭 하락
-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90.0만원으로 전월대비(1793.0원)대비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40만원), 서초구(2,879만원), 용산구(2,548만원), 송파구(2,373만원), 양천구(1,915만원), 광진구(1,870만원), 강동구(1,82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91만원), 도봉구(1,097만원), 중랑구(1,130만원), 강북구(1,13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수요 등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전월대비 1.7%, 1.6%로 상승세 지속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모두 전월대비 2.2%, 0.7%, 1.1% 증가하며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이 확대

## ■ 전국의 9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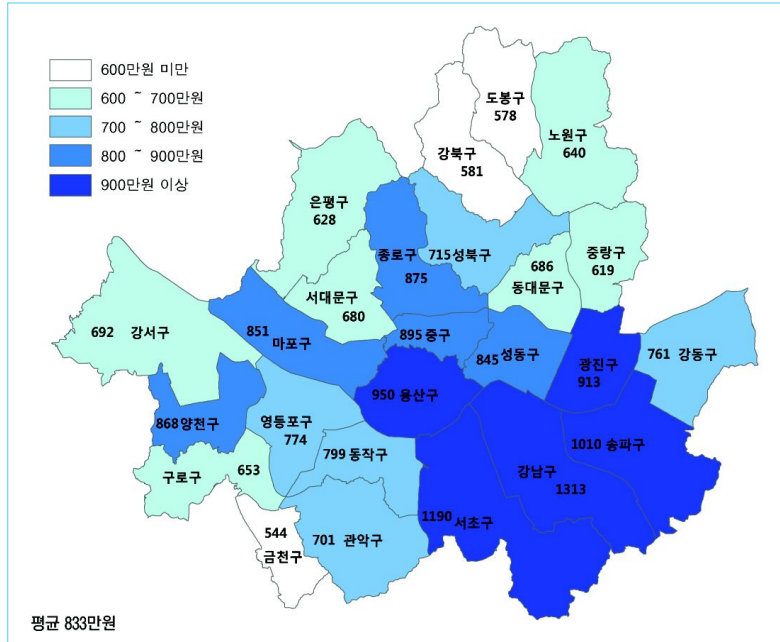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1.4%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전월대비 1.0%, 1.2%로 상승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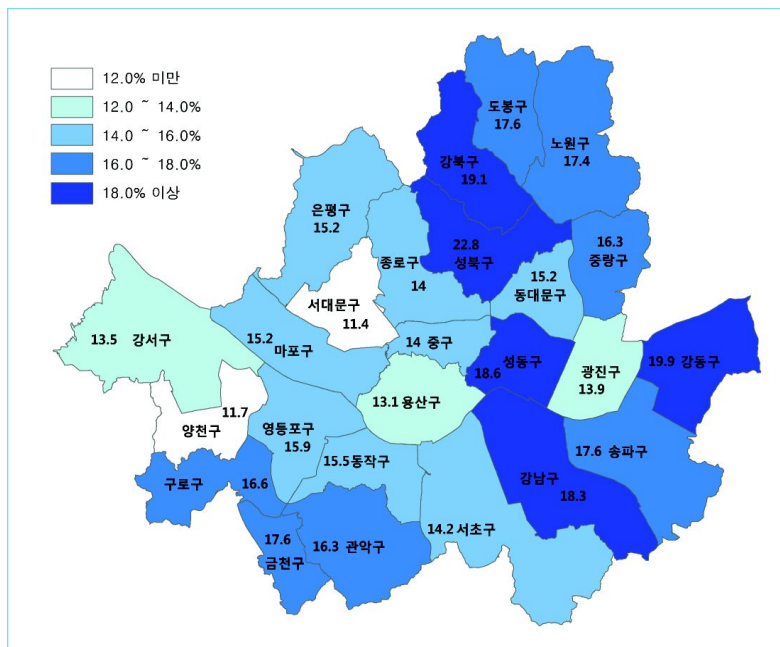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노원구, 마포구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전월대비 1.7% 상승**
  - 노원구는 비교적 저가의 소형 아파트 물량이 풍부하여 유입되는 수요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2.9% 상승
  - 마포구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편리함에 따라 신혼부부 수요 및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물량부족 심화로 전월대비 2.2% 상승
- **강남지역은 강동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상승**
  - 강동구는 암사동과 성내동의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송파구에서 유입되는 수요, 가을 이사철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2.5% 상승
  - 송파구는 강남구 청실 재건축 이주수요, 학군배정 수요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진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 수요, 가을 이사철 수요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2.0% 상승
-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33.42만원으로 전월대비(820.64만원) 큰 폭으로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313만원), 서초구(1,190만원), 송파구(1010만원), 용산구(950만원), 광진구(913만원), 중구(895만원), 종로구(875만원), 양천구(868만원), 마포구(851만원), 성동구(84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44만원), 도봉구(578만원), 강북구(581만원), 중랑구(61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9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9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9.9%로 전월(48.9%)보다 1.0%p 상승하며 상승 지속세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9.7% 보다 0.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0.2%p)보다 좁혀짐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2.5%, 강남 47.9%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9월 국고채 2개월 연속 하락하여 연중 최저수준 기록

■ 9월 중 국고채 전월대비 큰 폭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재부각, 미국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월에 이어 하락하여 연중 최저수준 3.45%를 기록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하락, CD 금리는 상승세 둔화

-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05%p 하락하여 8월 중 4.24%로 마감
- 9월 중 CD(91일) 금리는 전월대비 0.01%p 하락하여 3.58%로 마감

■ 장 ·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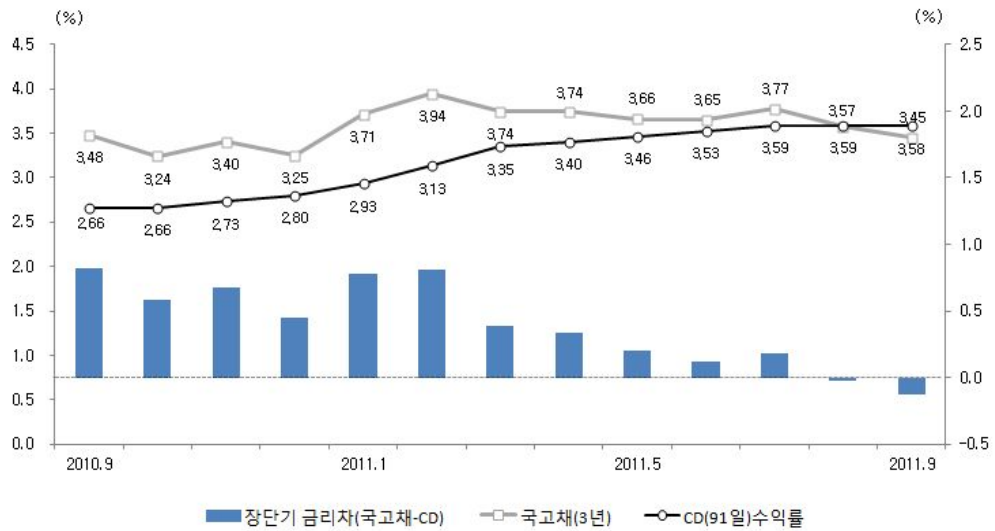
- 9월 중 장 · 단기 금리차는 CD(단기) 금리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고채(장기) 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전월대비 0.11%p 등락하여 -0.13%로 마감

■ KOSPI 지수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9월 중 코스피는 해외 불안요인의 진전 상황,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하여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우려 완화, 미국 경제지표 호전 등으로 반등하여 1790.95p로 마감

■ 9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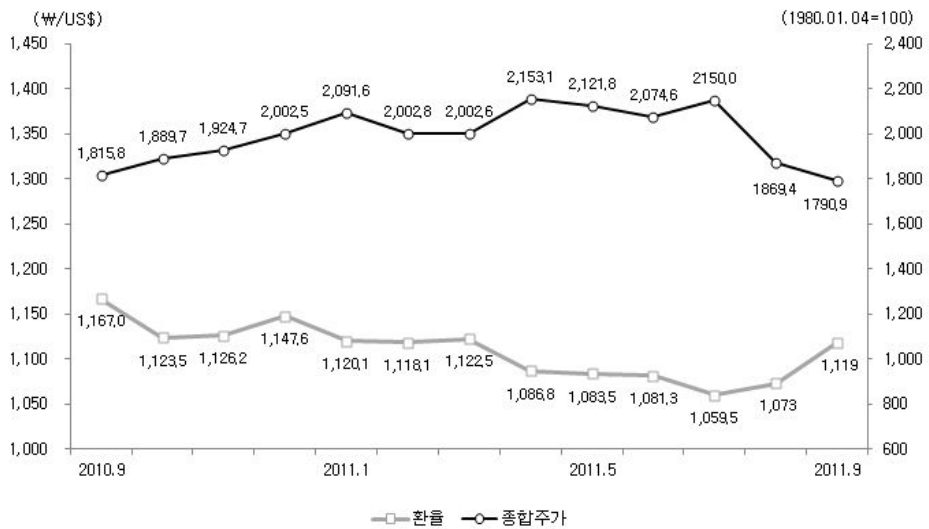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45.4원 상승하여 9월 중으로 1,118.6원으로 마감



주 : 기간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주 : 기간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8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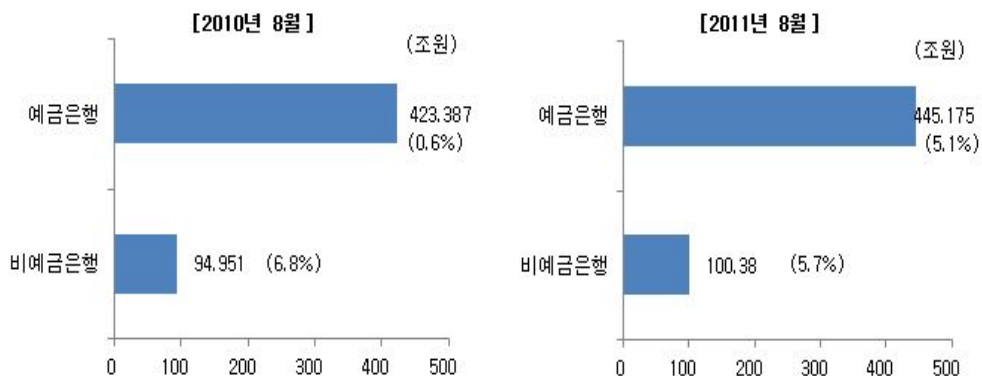
- 8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45조 5,556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7,283억원(0.50%) 증가
- 8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81조 1,169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115억원(0.51%)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예금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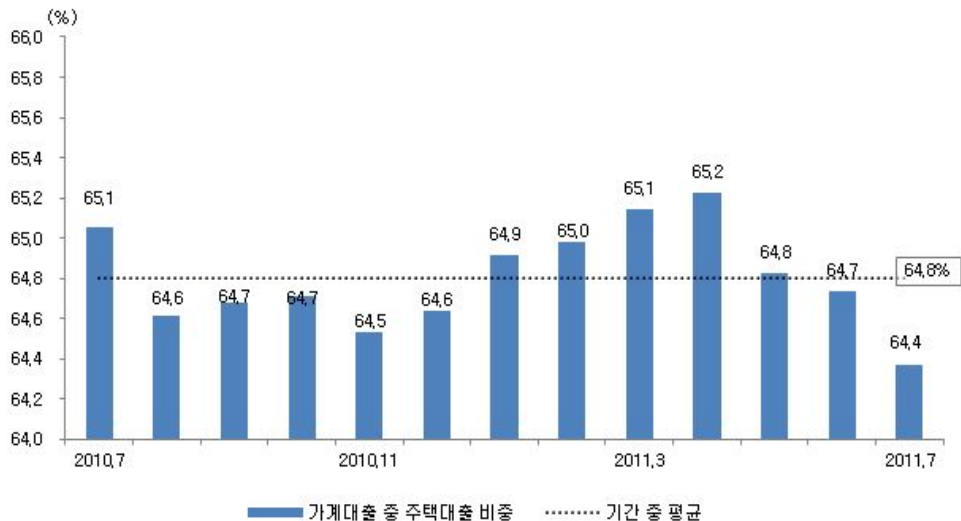
## ■ 7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7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73조 692억원으로 전월대비 610억원(0.4%)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259억원(64.4%)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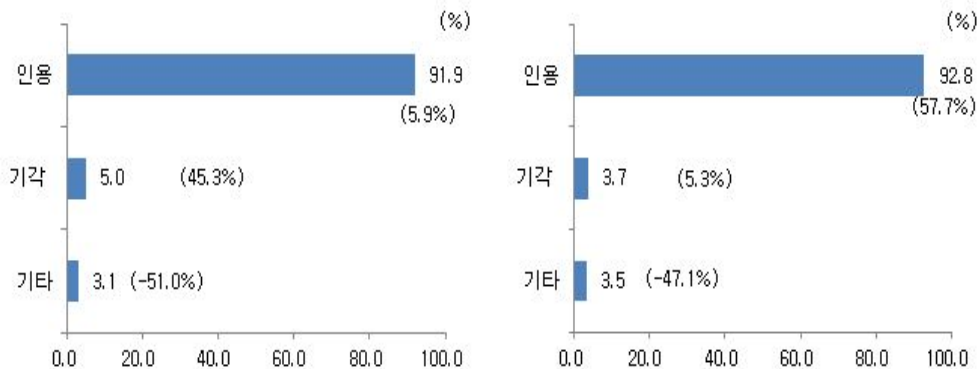
##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9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040명으로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5.0%로 전월대비 64.5%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3.7%로 전월대비 64.7%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9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9월 면책 처리현황

##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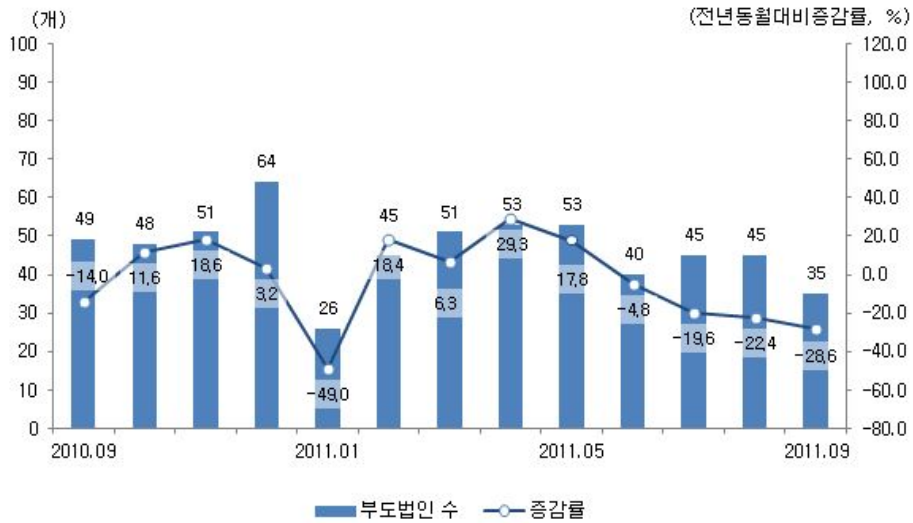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 4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크게 감소, 업종 모두 신설법인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597개로 전월대비 8.8%(155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7.5%(112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모두 각각 전월대비 16.8%(41개), 10.5%(10개), 7.1%(100개) 감소
- 서울의 9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 부도법인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5개로 전월대비 22.2%(10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28.6%(14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42.9%(3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전월대비 53.8%(10개), 37.5%(5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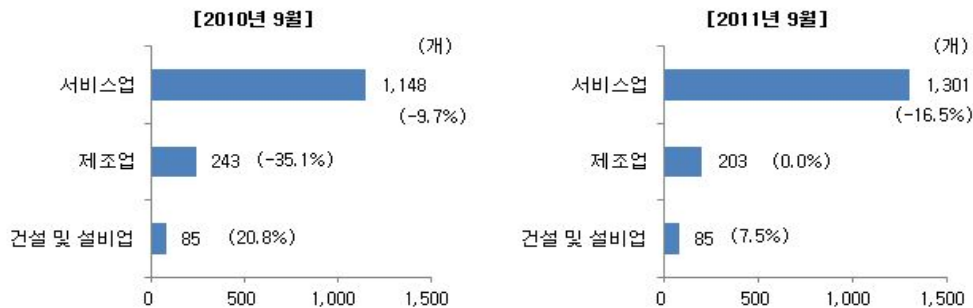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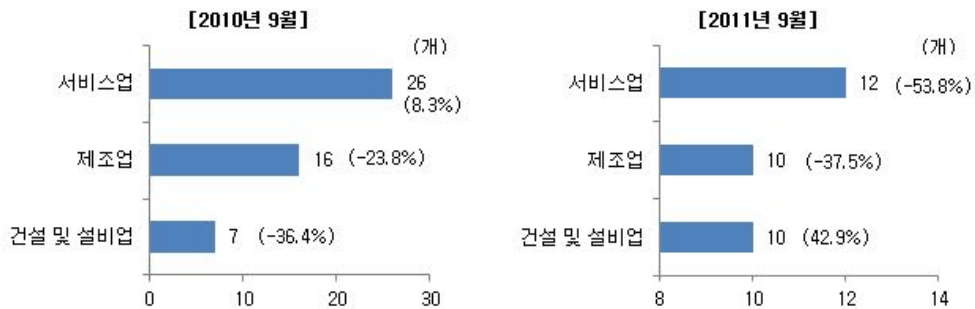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보합

- 9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동일한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5.6배로 전월(38.9배)에 비해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9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소기업 중심으로 증가

## ■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9월 중 3,059건, 86,938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5.5%, 보증금액 2.9%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5% 증가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61.4%, 23.1%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100.0%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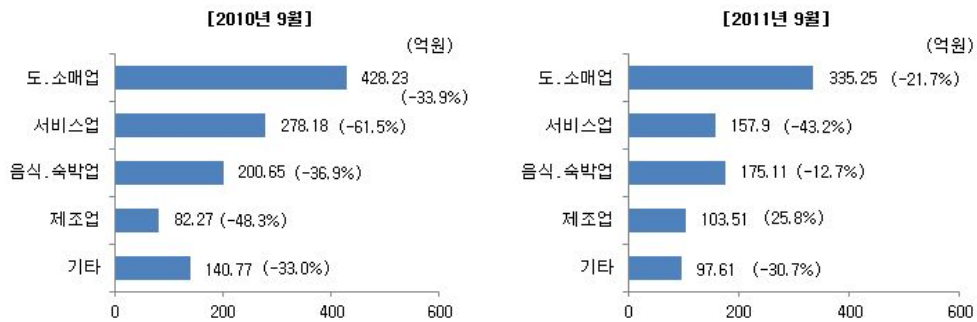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 도·소매업 지원 금액 비중 전월대비 상승

- 9월 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8.6%로 전월(38.1%)대비 0.5%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18.2%로 전월(20.0%)대비 1.8%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음식·숙박업종은 23.0%로 전월(21.8%)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1%로 전월(36.8%)대비 0.7%p 감소

## ■ 소기업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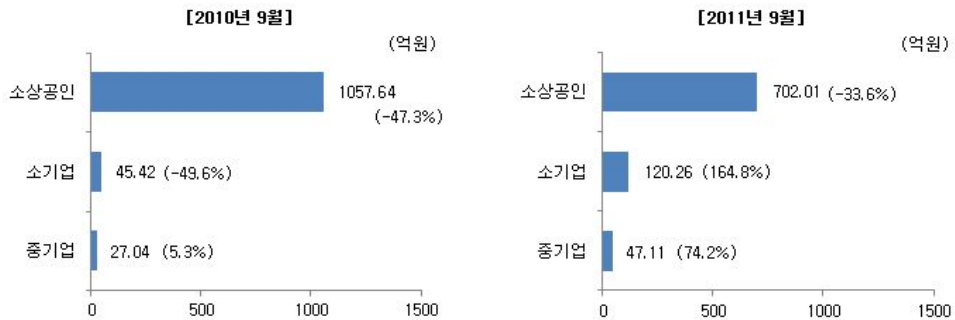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0.8%, 건수기준 92.2%로 전월 대비 각각 3.6%p, 1.4%p 감소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3.8%, 건수기준 5.7%로 전월대비 각각 3.2%p, 1.1%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5.4%, 건수기준으로는 2.1%로 전월대비 각각 0.4%p, 0.3%p 증가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9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심으로 증가

## ■ 서울의 9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2% 증가한 50.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8.1% 증가한 105.2억 달러 기록
-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한 468.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9.3% 증가한 452.7억 달러 기록

## ■ 서울의 9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70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합성고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3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류,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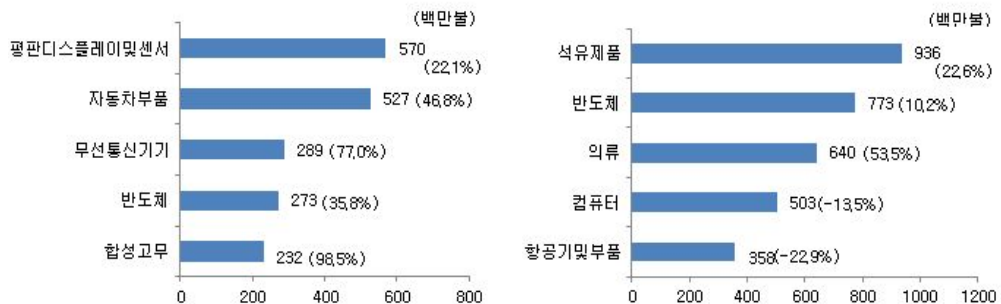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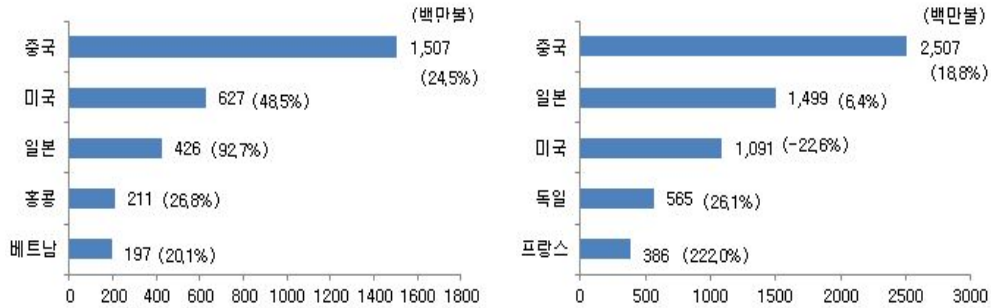
〈그림〉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 서울의 9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4.5% 증가한 1,50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순
-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월동월대비 92.7%로 증가하여 426백만불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한 2,50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22.0%로 크게 증가하여 386백만불 기록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9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627,228	48.5	합계	1,091,183	-22.6
	1	무선통신기기	139,924	77.5	항공기 및 부품	106,120	-75.9
	2	자동차부품	136,169	54.3	육류	64,534	86.8
	3	고무제품	57,862	31.1	무선통신기기	55,141	387.3
싱가포르		합계	63,326	24.4	합계	234,513	3.9
	1	반도체	20,999	32.1	반도체	105,430	-14.4
	2	석유제품	5,315	166,997	컴퓨터	35,560	18.5
	3	컴퓨터	4,711	-28.3	무선통신기기	19,799	6.9
페루		합계	7,053	9	합계	3,190	27.4
	1	합성고무	1,740	723.8	모직물	1,592	58.9
	2	합성수지	1,344	105	의류	506	187.3
	3	고무제품	919	300	수산물가공품	294	-
칠레		합계	14,116	-6.7	합계	79,384	87.1
	1	자동차	3,929	179.2	동제품	42,398	149
	2	고무제품	1,664	31.6	육류	10,705	15.6
	3	합성수지	1,595	146.6	제지원료	7,201	42.7
인도		합계	99,033	2.9	합계	260,595	93.6
	1	합성고무	18,115	5.4	석유제품	150,410	210.3
	2	자동차부품	13,930	-17	기초유분	41,644	301.4
	3	합성수지	9,847	5.2	천연섬유사	12,746	-31.7